DDA, 2008년 9월 농업협상*

신 유 선

라미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다.

지난 7월 농업 및 비농산물 세부원칙(Modalities)¹⁾ 타결을 위해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²⁾의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³⁾ 소규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⁴⁾가 일부 성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된 가운데, 라미(Lamy)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을 방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 1)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2) 1948년 이후 GATT가 추구해온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출범한 경제분야의 UN과 같은 기구이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과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스방식을 채용하여 특정 안건 표결시 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표국의 표결로 결정한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 상설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다.
- 3)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아홉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이전의 '라운드'라는 명칭대신에 개도국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협상은 WTO 15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2008년 현재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 4)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통상 2년에 한 번 열린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다. 이런 맥락에서 9월에는 선진 7개국(G7)⁵⁾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프로세스 및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1. DDA 농업협상 동향

소규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결렬 이후, 라미(Lamy)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브라질과 호주는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반면 EU와 일본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협상 재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라미 총장 방문을 계기로 협상 재개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9월 10일 및 9월 17~20일 선진 7개국(G7)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프로세스 및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⁶⁾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수입쿼타(Tariff Rate Quota, TRQ)⁷⁾ 신설과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⁸⁾ 등 기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EU와 일본이 TRQ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호주, 브라질, 인도가 반대하였고, 관세단순화와 관련하여서는 EU가 80% 수준의 증가세 전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의장주재 다자협상 재개를 위해 팔코너(Falconer) 의장은 주요협상그룹과 면담을 추진중이며, 9월 25일 25개국과의 비공식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향후 프로세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 교환예정에 있으며, 논의 결과에 따라 비공식 주요협의 등 협상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

9월 10일 및 9월 17~20일 G7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프로세스 및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SSM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의 주요 사항

소규모 각료회의가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OTDS)⁹⁾의 감축,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¹⁰⁾과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¹¹⁾의 수

5)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며, 여기에 러시아를 포함하여 G 8이라고 하며, 신흥 개도국 15개국을 포함하여 G 22이라고 한다.

6)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SSM을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5%의 관세를 쿼터밖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한다. 만약, 한해 동안 콩의 수입이 70톤만 되었을 경우 수입쿼터 소진율(fill rate)은 70%가 되고 30톤이 미소진(underfill)되었다고 말한다.

8) 관세단순화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증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452개 농산물 세번 중에서 76개 세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증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증가세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이다.

와 대우, 비농산물 분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¹²⁾에서의 관세감축 공식계수와 개도국 신축성 수준 등에 있어서 선진 7개국(G7)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핵심 원인으로 SSM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SSM 발동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관세 초과 조건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이 각료회의 결렬의 주요 원인이었다.

각료회의때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입장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은 SSM 발동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정리된다. 이에 대한 의장수정안(7.10)과 선진 7개국(G7)의 잠정타협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장수정안(7.10)의 발동조건은 사실상 발동기준물량의 110% 초과부터 가능하며, HS 6단위 기준으로 2~6개 세번(Tariff Line, TL)¹³⁾에 한해 UR 양허관세 초과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관세수준은 UR 양허관세의 115% 또는 UR 양허관세 +15% 중 큰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은 SSM 발동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정리된다.

표 1 SSM에 대한 의장수정안

구분		의장수정안(7.10)
UR 양허관세 초과 조건	발동기준(Trigger)	없음.(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구제조치(Remedy)	Max(UR 양허관세의 115%, UR 양허관세+15%)
	대상범위	HS 6단위 기준으로 2~6개 세번

9) UR 협상에서 크게 감축위무가 없는 허용보조인 그린박스과 가축을 해야 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영보조(De-minimis), 블루박스의 개념이 탄생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AMS, 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AMS, 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OTDS도 감축해야 한다.

10)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 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11)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 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 간 입장차가 크다.

12)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 농업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이라고 한다.

13) 관세를 부과하는 기본 단위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쌀이라는 한 가지 품목에는 16개 정도의 세번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HSK 10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선진 7개국(G7)이 제안하는 발동조건은 발동기준물량의 140% 초과부터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의 2.5%를 범위로 하였다. 초과관세수준은 UR 양허관세+해당연도 양허관세의 15% 또는 UR 양허관세+15% 중 큰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SSM에 대한 선진 7개국(G7)의 제안

구분		미국(G7)의 제안
UR 양허관세 초과 조건	발동기준(Trigger)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40%를 초과할 경우
	구제조치(Remedy)	Max(UR 양허관세+해당연도 양허관세의 15%, UR 양허관세+15%)
	대상범위	농산물 전체 세번의 2.5%

인도 등 개도국 특별품목그룹(G33)¹⁴⁾은 의장수정안과 동일하게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농산물 세번의 7%를 범위로 하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 등의 수출국은 발동기준물량의 140%가 UR 양허관세 초과를 허용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므로 이보다 낮을 경우 SSM 발동이 정상적인 무역흐름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표 3 SSM에 대한 인도의 제안

구분		인도(G33)의 제안
UR 양허관세 초과 조건	발동기준(Trigger)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구제조치(Remedy)	Max(UR 양허관세+해당연도 양허관세의 30%, UR 양허관세+30%)
	대상범위	농산물 전체 세번의 7%

인도 등(G33)은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 등 수출국은 발동기준물량의 140%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인 무역흐름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하여 EU는 두 가지 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안은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15~120%]를 넘을 경우 UR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관세수준은 해당연도 양허관세의 33% 또는 절대적으로 8%p 중 큰 수치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 물량의 [135~140%]를 넘을 경우 초과관세수준은 해당연도 양허관세의 50% 또는 12%p 중 큰 수치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의장수정안(7.10)과 같이 전체 세번의 2.5%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중재안은 실제 해당 세번의 국내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가격이 [7.5~15%] 하락할 경우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15~120%]만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관세수준은 해당연도 양허관세의 50% 또는 12%p 중 큰 수치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14)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히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이러한 EU의 중재안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인도는 대상 범위가 2.5%로 너무 적으므로 농산물 전체 세번의 7% 혹은 적어도 5%는 되어야 하며, UR 양허관세 초과 관세수준도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인도는 이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이는 소규모 각료회의가 결렬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SSM에 대한 논의 내용

최근 이루어진 논의에서 SSM이 정상교역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하에 주요국들은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으나, 인도와 중국은 발동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9월 10일과 9월 17~20일에 개최된 선진 7개국(G7) 고위급회의에서 잔여쟁점 사항으로 SSM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SSM이 정상교역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하에, 발동조건, 대상범위, 구제조치와 발동기간 등의 핵심요소에 대하여 주요국들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EU는 소규모 각료회의때 제기한 두 가지 방식의 중재안을 일부 조정하여 다시 제안하였다. 하나는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며, UR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관세수준은 해당연도 양허세율의 33% 또는 8%p 중 높은 수치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40%를 넘을 경우 해당연도 양허세율의 50% 또는 12% 중 큰 수치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범위는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세번의 2.5% 이내이며, 연속발동을 금지하는 부수조건을 달았다.

표 4 SSM에 대한 EU의 새로운 중재안

구분		EU의 새로운 중재안
UR 양허관세 초과 조건	발동기준 (Trigger)	1)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2)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40%를 초과할 경우
	구제조치 (Remedy)	1) Max(UR 양허관세+해당연도 양허관세의 33%, UR 양허관세+8%) 2) Max(UR 양허관세+해당연도 양허관세의 50%, UR 양허관세+12%)
	대상범위	농산물 전체 세번의 2.5%

물량기준 SSM발동 기준을 110%와 140%로 가정했을 경우, 2007년 기준 우리나라 SSM 발동횟수는 110%인 경우 466회이고, 140%일 경우 296회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EU의 새로운 중재안에 대해 인도와 중국은 여전히 발동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SM 발동 가능성

물량기준 SSM 발동기준을 인도와 미국이 각각 제안한 110%와 140% 이상으로 가정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세번에 대한 발동 횟수는 <표 5>와 같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SSM 발동횟수는 110%인 경우에는 466회이고, 140%일 때에는 296회로 나타났다.

표 5 전체 세번에 대한 SSM 발동 횟수

발동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140% 이상(미국)	351	346	297	287	296
110% 이상(인도)	508	517	458	442	466
발동 없음	961	952	1,011	1,027	1,003

주: 1) 110%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2) HSK 10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음.

쇠고기의 경우는 2007년 기준으로 110% 이상일 때는 13번, 140% 이상일 때에는 8번 발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돼지고기는 110% 이상일 때는 11번, 140% 이상일 때에는 8번 발동하며, 낙농품의 경우도 각각 13번과 5번으로 나타났다.

표 6 쇠고기의 SSM 발동

단위: %

HSK 코드	세부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2007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와 이분도체)	266	10	5	1	1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	441	81	96	147	14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225	88	126	163	176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255	17	2	6	52
0202200000	쇠고기(냉동/기타/뼈채 절단)	131	40	57	79	8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	125	76	70	101	130
0206100000	소식용설육(신선/냉장)	304	36	75	205	207
0206210000	소식용설육(혀/냉동)	107	5	5	43	269
0206220000	소식용설육(간장/냉동)	0	0	0	0	0
0206291000	소식용설육(꼬리/냉동)	135	92	89	93	113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150	12	21	77	204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106	45	58	104	124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0	0	0	0	36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0	0	0	0	0
0210991010	쇠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2,700	180	225	0	0
0210991090	육 또는 식용설육(기타/분.조분)	75	180	75	75	23
0504001010	장(소의 것)	109	5	37	132	173
0506901020	뼈(소의 것)	0	0	0	0	0
0511993010	수정란(소의 것)	0	0	0	0	0
1602100000	육.설육(균질화조제품)	150	0	500	0	0
1602501000	소의 것(밀폐용기의 것)	425	129	240	24	67
1602509000	소의 것(기타조제저장)	135	31	28	88	610
1602901000	조제육설육(밀폐용기의 것)	52	245	835	419	248
1602909000	조제육.설육기타	115	93	77	103	104
2104101000	수프.브로드.제조품(육류의 것)	107	158	391	246	119
2301101000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및 펠리트	121	5	21	25	139

주: 표안의 수치들은 과거 3년 수입량 평균을 100%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해당년도의 수입증감율을 나타냄. 가령 물량발동기준이 110%인 경우 수치가 110 이상인 품목은 모두 발동하고 그 이하인 품목은 발동하지 않음.

표 7 돼지고기의 SSM 발동

단위: %

HSK 코드	세부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2007
0210120000	돼지고기 식용설육(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16	171	210	155	148
160241100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의 것)	126	110	123	92	79
160242100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의 것)	0	0	0	0	0
1602491000	돼지고기 기타부위(밀폐용기의 것)	125	129	104	100	104
160241900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기타조제저장)	113	171	166	212	113
160242900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기타조제저장)	95	64	26	0	0
1602499000	돼지고기 기타(기타조제저장)	151	212	173	301	283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0	17,614	163	80	23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 있는 것)	28	349	209	470	91
0203291000	돼지고기(냉동/삼겹살)	98	142	147	139	139
0203299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06	156	205	174	131
0210110000	돼지고기 식용설육(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 있는 것)	0	0	0	0	0
0210190000	돼지고기 식용설육(기타)	141	127	15	450	16
0203110000	돼지고기(냉장/도체와 이분도체)	0	0	0	0	0
0203120000	돼지고기(냉장/넓적다리,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 있는 것)	0	0	14,100	0	6
0203191000	돼지고기(냉장/삼겹살)	123	441	469	313	212
0203199000	돼지고기(냉장/기타)	8	2,365	728	410	328
0210991020	돼지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 조분)	0	0	0	0	0
0206300000	돼지식용설육(신선/냉장)	0	933	0	429	1,306
0206410000	돼지식용설육(간장/냉동)	0	0	0	1,064	147
0206491000	돼지식용설육(족/냉동)	108	163	176	180	57
0206499000	돼지식용설육(기타/냉동)	43	182	559	282	200
0209001000	돼지비계	0	7	1,480	293	155

주: 표안의 수치들은 과거 3년 수입량 평균을 100%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해당년도의 수입증감율을 나타냄.

3. 양우 전망 및 계획

다자협상이 재개되면 소규모 각료회의 잠정타협안과 그 이후의 논의사항인 다자화, 잔여쟁점 등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선진 7개국(G7) 논의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참석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협상과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미 사무총장은 금년내로 세부원칙(Modalities) 타결과 내년 상반기 이행계획서 작성을 목표로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SSM 등 주요 잔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협상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수입국 그룹(G10)¹⁵⁾ 및 개도국 특별품목그룹(G33) 등과의 공조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G10, G33 주요국과의 양자협정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SSM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여러 제안을 상세히 평가하고 G33 공조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품목(SP) 관세감축면제 범위의 확보와 일률적인 관세상한(Tariff Capping)¹⁶⁾ 도입 저지 등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된 부분은 최종 협상타결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DDA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영향분석 작업이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¹⁷⁾ 작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미 총장은 금년내로 세부원칙 타결과 내년 상반기 이행계획서 작성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SSM 등 주요 잔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용어해설, 2007

농림수산식품부,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70선, 2008. 6

농림수산식품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3, 10 July 2008

15)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으로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16) 관세 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이다.

17)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